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지금 지방시대' 성황

이철우 - 김영록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새마을광장 일원에서 전남도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다. 화합콘서트를 시작으로 상생 비전을 선포하고 농특산물 교류, 사투리 잔치, 청소년 프로그램 등 문화로 영·호남이 하나되기 위한 시작이다.

이번 축전 슬로건 '지금은 지방시대, 하나 되는 영호남'이 행사의 취지다. 부대행사인 영호남 상생장터는 경북과 전남 지역 50여 농가가 참여해 11~12일, 이틀간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새마을광장에서 두 시간가량 펼쳐진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콘서트에는 3000여명의 도민이 모여 들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



▲11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송가인·이찬원 콘서트

이철우 경북지사 - 김영록 전남 지사, 남다른 우애와 협력관계 과시 송가인·이찬원 콘서트에 전남 300명, 경북도민 3000여명 모여 상생협력 슬로건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문화로 뭉친다”

북도지사가 송가인·진성·박창근·이찬원 등 유명 가수와 함께 호흡을 같이했다.

영호남이 문화와 예술 화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두 기관은 문화축제를 선택했다.

경북과 전남의 상생과 희망을 음악 예술로 경상북도립국악단과 전라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11일부터 1주일간 미술교류 전시회도 열린다.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서 두 손을 꼭잡았다.

또 부대행사로 ▷영호남 상생장터 ▷영호남 사투리잔치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문화예술교류전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답사 ▷매거진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전남지역의 유림, 문화 예술인을 비롯한 전남 주민 약 300여명이 경북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렸다.

이번 행사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협력하자는 '영호남 상생비전선언문'을 양지역 청년대표가 낭독하고 양지역 도시사 및 도의장 서명이 진행됐다.

한편, 평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다른 우애와 협력관계로 함께 제안해 이번 행사가 성사됐다는 후일담이 있다.

장지수 기자

잊혀져가는 한글날

지난 9일이 올해로 한글 창제 576돌이다. 500여년을 지나면서 '언문(諺文)'이라며 선비들에게 천대 받고, 일제 강점기 술한 탄압을 받았지만 묵숨처럼 지켜온 우리민족의 정체성이다. 미군정때는 영어를 섞어 사용하면서 서서히 외면당해 온 고난사(苦難史)가 깊었던 한글이다.

알고 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도 한글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어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대기자로 넘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매년 30만명에 달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말을 홀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한글날을 맞아 지역 한 국·공립어린이집 외벽에 나라 사랑 한글이 아이들의 손에서 작품



(사진=영천시 문화동 LH아파트 단지 내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 정문 외벽)

화 되어 태극기와 함께 그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어 새삼 감격스럽다.<사진>

● 관련글 11면 칼럼 장지수 기자

나랏말싸미
 中國國에달아
 文用字중와서르스 못디아니홀씨
 이런전추로어린百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무출내제쁘를시러퍼디온홍노미하니라
 내이를爲원후야어옛비너겨
 새르스물여름字중롤링?노니
 사롬마다히어수비니겨날로부메便便안리후고저홍스 루미니라

영천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영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관내 진출입 모든 축산차량 소독할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등을 시행한다.

또한 시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방역취약지역·농장에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한다. 이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소·염소 등) 농가 일제 접종이 내달 15일까지 6주간 실시된다.

김효정 기자

제17회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

주요/행사

- 북타공연, 풍물길놀이
- 지삼음악예술단 공연
- 국악한마당
- 어울림마당, 경품추첨
- 포도 와인 체험
- 영화인문학습전
- 건강관리 체험

경품대잔치

- 은누리상품권 등 1,000여점

▶ 경품권은 영천공설시장 회원점포 및 후원업체에서 배부 ◀

영천공설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입장 하실때나 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

개회식 : 오전 11시
 영천공설시장 3F 주차장 특설무대
 (우천시 1층 중앙통로)

- 주최/ 영천공설시장상인회
- 후원/ 영천시 영천시의회
- 후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행사문의/ 영천공설시장상인회(☎ 331-1772)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0억 원 확정



최근 6년간 영천·청도에 특별교부세 중 최대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과 청도에 교부되는 행정안전부 2022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총 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6년간 영천·청도에 교

부된 특별교부세 규모로는 최대다. 이같은 교부세 수준은 통상 10억원에서 20억원 안팎인데 이번 영천(29억원), 청도(31억원) 교부세 확보는 두 도시 모두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영천시에 교부 예정인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주민센터~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2억원, ▲고경면 차

당리 차당천 교량개체공사 10억원, ▲봉동 가와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영천시민회관 건축물 내 진보강공사 2억원 등 29억원.

청도군은 ▲「무등~안인」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영산지구(내리)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상) 수월마을(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청도천(각북지구) 흥

수피해 예방사업 16억원 등 31억원이다.

국회 소관부서가 행안부 간사인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영천시와 청도군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온 결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관(官)주도 행사 인식 전환 필요... "전국 타 도시 임산부의 날 행사 어떻게?"

보여주기식 행정 편의주의, 행사 목적 퇴색, 자치단체장 사진 찍기 행사 개선돼야

관(官) 주도 행사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물품 판매 등 형식적 사진 찍기용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영천시의 행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천시보건소(소장 박선희)는 5일 임산부의 날(매년 10월10일)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과 친화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제 17회 임산부의 날 행사를 이편한 아파트 내 완산동 근린공원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플리마켓에서는 영유아들이 시장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동 용품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관심을 끌었고, 이날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격찬했다.

하지만 행사 장소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 아닌 특정 아파트 한가운데서 실시했다. 시간도 이날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3시까지로 한정해 사전에 참가 신청하거나 확인된 일부 단체 및 인원만 참가해 일반 시민들은 "행사를 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부스 배정은 물품 판매위주

가 대부분이고, 플리마켓 또는 아나바다 운동을 비롯해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으로 편성됐다. 지역 5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신청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당초 행사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임산부의 날 제정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 제정해 올해로 정부 기준 17회째다.

이날 보건소는 임산부와 예비·신혼부부, 영유아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날 홍보를 한다면서 영천제이병원과 맘스플리마켓,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특정 어린이집, 일반 의류, 가방, 이불, 영유아 시장놀이 체험, 요술품 등 15곳에 부스를 배정해 마치 물품판매나 바자회를 연상케했다.

또 행사 장소는 영화관(영천롯데시네마)과 연결하게 설정해 선착순 100명에게 영화(톨리) 관람권을 제공하고 관람시 경품 추첨 흥행 위주로 행사가 편성돼 행정 편의주의의 행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영천시보건소는 앞서 사전에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곳을 신청받아 첫 타임부터 임산부의 날 취지와 거리가 먼 5세이상 영양교육 및 실습(체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린이



와 함께 교육 경정 사진만 찍고 자리를 떠나 행사에 참가한 한 학부모(이편한 거주)로부터 "임산부 배려와는 거리가 먼 행사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진찍기용 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지에 제보한 복수의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모든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강변공원을 비워두고 이곳 아파트 단지 내를 행

사장으로 선택하고, 또 단지 내 특정 어린이집에 홍보부스를 배정한 것과 주로 플리마켓 또는 물품 판매 부스를 배치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며 의혹을 나타내고 "행정 편의주의와 단지 내 아파트 어린이집 홍보, 물품 판매를 위한 행사"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市 보건소측은 장소 선정에 대해 "영화관 대관으로 관람(영화

톨리)을 위해 가까운 곳을 택한 것이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부스를 배정한 것은 당초 특혜 논란 우려가 있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특정 어린이집을 위한 의도적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행사 일정을 5일 앞당긴 것은 "이번 임산부의 날(10일)은 한글날 대체휴일로 어린이집 등이 대부분 휴일로 인해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앞당겼다"며 "물품 판매 등에 대해서는 '우리(보건소)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플리마켓을 제외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일부 의원과 제보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진정성이 부족한 행사를 위한 행사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는 "특정지역이나 단체를 배려한 행사가 아니라 또 행정용 사진찍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며 행정의 행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의회 초선 한 의원은 "행사 초청은 받았지만 일정이 바빠 참석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전국 타 도시 임산부의날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취지에 맞게 특정 장소나 단체가 아닌 전체 시민을 보고 행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권기한 영천시의의원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원 312명 중 재산 1위

2022년 수시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내역 9월30일 경북도보 공개 시·군 기초의원(312명)·공직유관기관(2명) 평균 8억9천200만원 50억원 이상 1%(2명), 1억~10억원 60%(107명), 0원 이하 5%(8명)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의원 312명의 평균 재산은 8억8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천시의회 권기한 의원의 재산이 61억2,491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가 도보를 통해 공개한 지역 수시공개대상자(퇴직자 포함)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임원 2명과 기초의원 312명 등 총 314명의 평균 신고 금액은 8억9천2백만원이고, 총 312명의 23개

시군 의원 중 신규·재등록 의원(176명)의 평균 신고 금액은 8억8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영천시의회 권기한(61억2,491만7천원) 의원으로 뒤를 이어 경주 한순희(33억3,402만1천원) 의원과 영주 김세연(31억7,480만2천원) 의원이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권기한 의원은 채무를 상계하고도 61억2,491만7천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40억원가량이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건물이다. 예금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장남, 장녀 포함) 등 6억6천여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증권이 35억원 규모에 채무는 20억원이다.

또 이들 전체(314명)의 재산 규

모를 살펴보면 50억원 이상이 2명(1%), 1억원~10억원이 전체의 60%(107명)를 차지했다. 재산이 0원 이하인 대상자도 5%(8명)로 조사됐다.

특히 50억원 이상 신고한 대상자는 이종수(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소속 58억원, 영천시의회 소속 권기한(61억원 규모) 의원 단 2명뿐이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보에 게재된 재산공개내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경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13명)과 도의원(3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됐다.

장지수 기자

이철우 도지사, 전국 최초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 확대 추진

경북 23개 시군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50명 배치...전국 좋은 사례 경북 인구 260만 9,356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61만1천명(23.4%)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올 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북형 경로당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4일 오전 김천문화

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의 날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상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매년 10월 2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유엔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경상북도 전체 인구는 260만 9,356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만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에 해당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22.8월 통계청 KOSIS지표)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밑반찬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23개 시군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50명을 배치해 건강·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 단순 시간보내기 식의 '정적인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관리·운동·학습 등의 '사회참여활동 공간'



▲4일 김천문화예술회관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추진도 좋은 성과를 거둬 노인복지 사례(전국)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도는 시군별로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해 맞벌 및 상담을 동시 추진해 향후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모델로 안착을 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경북을 만드셨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하다. 도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노인복지사업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꼭 해 주시는거죠?" 원희룡 국토부장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9일 영천 은해사, 창건 1213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에서 국회의원 - 원장관 대화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시내까지 연장 재차 약속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의 국토부 소관 사업 건의에 엄지척을 세우며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북 영천 은해사 창건 1213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에 참석해 자리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경산)-금호(영천)구간 사업을 영천시내(영천역)까지 추가 연장해 줄것을 요청하자 이같이 엄지척을 세우며 화답했다.

지난달 30일 금호(영천) 지역에 제4경마장(영천경마장) 기공식이 있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은 정부가 2350억원을 투입해 금호읍(영천 경



▲9일 열린 경북 영천 은해사 창건 1213주년 개산대제에서 이만희 의원이 지역 현안사업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까지 연장을 요청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엄지척으로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다. 사진=장지수 기자



▲9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경북 영천 은해사 창건 1213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 약천사 전 주지(왼쪽) 성원 스님, 은해사 포교국장 도관 스님과 만나 환하게 웃으며 재회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장지수 기자

마공원)까지 이미 시설 결정을 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이를 영천시내까지 추가 연장해 줄것을 이날 원 장관에게 요청해 재차 화답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사업은 대도시광역교통심의위원회-국토부-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영천 시내까지 연장)"이거 꼭 좀해주십시오" 라고 말

하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엄지척과 함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화답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도시철도 1호선 영천시내까지 연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영천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만희 의원이 재차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개산대제는 은해사가 8일과

9일 양일 간 개최되는 '제2회 중앙팔공산 은빛문화제'와 '은빛음악회'가 운대 진행되는 창건 법요식이다. 은해사에서는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 조계종 원로 은해사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 스님, 성보박물관 관장 돈관스님과 말사 대중스님, 수행단체, 신도 등 불교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정흥규 신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한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 윤두현(경산)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방성대 육군3사관학교 교장(소장),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하기태

영천시의회회의장 등 지역 시도의원 및 기관단체장 등은 손님으로 참석해 은해사 창건 기념일을 축하했다. 앞서 지난 8월 동국대에서 행정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원희룡 장관은 "은해사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서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개산 법회 봉행사를 통해 "선대 조사 스님들의 해명을 받들어 영천과 경산시민, 경북도민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천년고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지수 기자

아마추어무선 경북 남부지대, 긴급 재난통신 훈련

인터넷·전화 두절시 응급 대응 경산·경주·영천·청도 4개 지부

한국아마추어무선 경상북도 남부지대 긴급 재난통신 훈련이 지난 9일 영천시 교촌동 아마추어 영천지부 전정에서 김종팔 경북본부장 및 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춘우·윤승오 도의원 및 이영우 시의원, 각 지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됐다. 이번 훈련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터넷과 일반 통신선 두절을 가정한 재난상황에서 SSTV(저속 주사 텔레비전) 아날로그 통신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설치 훈련이다. 남부지대 지대장은 경북본부 정은표 부분부장으로 경산과 경주, 영천, 청도 4개 지부로 구성되어있다. 정

지대장은 이날 훈련은 "평소 각 지부 지역으로 순회하며 실시한다"면서 "이번 훈련은 영천지부를 위한 특별 배정 훈련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만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훈련이 있는것도 몰랐다"며 무전기(리그) 및 안테나 등 관련 장비들을 둘러보고 "아마추어무선이 특수한 재난시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화려한 뒷면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지수 기자



CHEONGDO BANSI FESTIVAL 2022

주홍빛 반시 맛 사랑 받고, 주홍빛 청도 멧 사랑 빠지다!

2022 청도반시축제

10.14.금 ~ 16.일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주최 청도군 주관 청도반시축제 추진위원회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4일 퇴임

"퇴임 후 경북 지방시대 응원할 것" 이철우 도지사와 통합신공항 유치 최고 청렴도 달성 등 큰 업적 남겨



제35대 강성조 <사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4일 퇴임했다. 2020년 1월 취임 후 2년 9개월 만이다.

강 부지사는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를 도와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위기에 앞장 서면서 태풍·산불 같은 대형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특히 중앙 인맥 통으로 경북도의 국비1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 디지털·청년농업 대전환,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퇴임식에서 "고향인 경북에서 공직을 마무리하

게 돼 영광이다. 도청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잊히지 않을 것 같다"며 "경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전 출신인 강 부지사는 부산 금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지난 2020년 1월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했다. 장지수 기자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김학홍 기획단장, 道 행정부지사 취임

이철우 도지사 "지방분권시대 국가균형발전 경북 선도적 역할" 기대



경상북도 제36대 행정부지사에 경북 문경 출신인 김학홍 <사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6일 취임했다. 김 부지사는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 정책기획관, 경산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민간협력과장, 지방규제혁신과장,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지역혁신정책관 등 중앙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올해 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으로 부임한 후 이번에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귀향했다.

김 부지사의 취임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지방으로 이완하고,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시대 경북의 선도적 역할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부지사도 취임과 관련한 각오에서 "지방시대가 시대적 화두인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주택난, 취업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리더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 전문통으로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겸비한 행정가로 알려진 김 부지사는 취임식도 생략한 채 지난 6일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수 기자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성료'... 2600여명 출전

하프 남부 마성민(목포)-여부 류승화(천안) 우승 김하수 청도군수, 광역철도 청도 연장 기원, 청도 반시 홍보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제15회 청도반시전국마라톤대회'가 3년만에 재개돼 2600여명이 출전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다.

11일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이번 대회는 광역철도 청도 연장을 기원하고 청도 반시의 대내외 홍보를 위해 지난 9일 개최돼 성황리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대회는 청도군체육회와 지역 대구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지역 농협과 대구은행 마라톤 클럽을 비롯해 전국 마라톤동호인, 지역 주민 등 2600명이 출전해 이날 오전 10시, 하프 코스(21.0975km)를 시작으로 5분

간격으로 10km, 5.9km순으로 진행됐다.

하프 구간 남부에서는 전남 목포 마성민씨가 1시간12분47초, 여부에는 충남 천안 류승화씨가 1시간 23분45초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 남자 10km는 박홍석(경남 거제)씨가 33분41초, 여자 10km는 이민주(부산)씨가 41분36초의 기록으로 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5.9km는 서민보(경남 밀양)씨와 하유숙(부산)씨가 우승을 차지 하는 등 이번 대회 청도 주민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편, 광역철도 청도 연장은 전동열차가 김천~구미~칠곡~대구~경산~청도까지 총연장 108.6km 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동대구에서 청도까지 22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올해 1월 내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권 광역철도(구미~경산, 61.8km)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산~청도 구간을 추가 연장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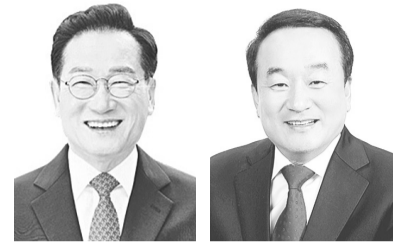
김하수 청도군수는 "광역철도 청도 연장 기원과 청도반시 홍보를 위한 청도반시전국마라톤 대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행복청도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효정 기자



영천 미래 먹거리,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로 답 찾는다

13일 유치 추진 현황 보고...적합후보지 한 곳 대구시에 추천 제2탄약창 150만평 유력...시설 지하화(비용) 해결 걸림돌 네 곳 군부대, 세 곳의 미군부대 별도 분리 유치 목소리도

영천시가 흥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인 군사시설 통합 이전 추진과 관련해 유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기문 시장

하기태 의장

대구시가 국군 및 미군 등 7개 부대 통합 이전을 희망하는 경북 5개 지자체에 각 1곳의 유치 희망 지역을 결정해 이달 12일까지 '군사시설 이전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여론수렴을 이유로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및 각 국소장을 비롯해 하기태 의회 의장, 시의원, 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140명을 대상으로 유치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달 27일 운영대 대구 군사시설이전단장과 만나 군부대 통합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20여일 만이다.

여기에 영천시의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하기태 의장은 13일 개최한 영천시의 유치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와 관련해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종섭 국방장관, 여권 등 정치권과 당사자격인 대구시와의 정무적 접근에도 영천시와 한목소리로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헨리·조지 미군부대 3개 등 모두 7개의 시설을 묶어 연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계획을 건의한다고 밝히고, 영천시에 250만평의 부지를 요구한바 있다.

또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반도체·로봇산업·헬스케어·도심항공교통·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부대 이전 지역에는 주거와 의료, 교육시설, 등을 갖춘 민·군상생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어 영천 시로서는 미래 먹거리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파악해 이번 유치전을 시정 우선순위에 두고 사활을 걸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날 영천시는 "이 달 말까지 군부대 및 관련기관 이전 적합 후보지 1곳을 찾아 대구시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부지다. 군부대 특성상 7개 시설 모두를 사실상 한 곳에 묶어 이전한다는 것도 무리다. "군 시설 특성상 유사시에 적으로부터 공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군 당국자들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네 곳의 군 부대와 3곳의 미군부대를 별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뒤를 따랐다.

고경면민들은 "2군사령부를 단독 고경면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하기태 의장은 "군 관련 기관과 배후 정주시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분산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천은 기존 군사시설이 많아 후보지 물색에 군을 배제할수는 없다. 먼저 제2탄약창 부지 약 150만평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탄약창의 특성상 탄약고 안전거리 등급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격 거리가 정해져 있다. 시설 지하화가 요구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수만대 국방부와의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육군제3사관학교 부지다. 분지 취재에 따르면 3사관학교는 영내 부지 30만평에 영외 훈련장 부지 등을 포함해 약 200만평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산이 둘러싸여 높은 개발비용 부담과 유치시에 사관생도 훈련 부재 등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돼 제2탄약창보다 적합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외에 고경면과 북안면 일부와 임고면 매호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는 대부분이 산지여서 7개 시설의 분산 배치가 아니면 사실상 대안 후보지 거론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영천시는 지난달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이 영천을 방문해 2~3개 후보지 현장 확인을 거쳤다"며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유치가 영천 발전의 기회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와 함께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철곡을 시작으로 군위, 영천, 상주, 의성 다섯 자치단체가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국방부에 지자체별 1곳의 이전 후보지 활용 방안을 담은 '이전 협의서'를 제출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2024년 6월까지 이전대상지 지자체-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해 빠르면 2028년 연말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전국 농업 대전환 천명 “네덜란드 농업 배우자”

50년만에 국내 육류소비 11배 늘고, 쌀은 반대로 3배 줄어 120ha 대규모 농지 조성, 축산사료 자급자족 시범사업 필요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 시범 보이겠다" 축산인에 협조 당부



2022 경북축산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국 농업의 집단화와 기업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돈 버는 농업에서 잘사는 부자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국 농업 대전환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0일 정오 경북 영천에서 열린 경북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해외 네덜란드와 한국 농업을 비교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네덜란드와 미

국(LA)을 방문해 네덜란드의 영농방법과 물류 및 스마트팜 벤치마킹 관련 선진 농업기술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네덜란드 견학기를 지역 축산인들에게 전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가 5kg이던 것이 50년만에 11배인 55kg으로 늘었지만 그 소비의 60%가 수입이며, 쌀의 경우 70년대 1인당 년간 135kg을 소비했으나 이제 53kg에 불과해 축산을 포함해 한국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네덜란드는 국민 1인당 32ha의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한국은 겨우 1.5ha에 불과해 체계적 대농화와 기

업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국내 농업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 지사의 네덜란드와의 우리 농업 비교는 계속됐다.

네덜란드는 총 면적이 415만 4천 ha다.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의 2배가 넘는 총 1,004만 128.5ha다. 면적은 우리의 1/2인데도 네덜란드의 수출입 농업은 흑자 380억불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적자가 360억불이고, 네덜란드 국민 평균 소득이 5만5천불인데 반해 농업인은 일반 국민 평균 소득보다 높은 8만불에 가깝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농업인은 겨우 3만7천불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지사는 네덜란드 농업

은 체계적인 기업화와 집단화 및 대농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도 빨리 네덜란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경상북도가 농업 대전환을 위해 먼저 시범을 해보겠다고 하며 이날 경북축산인 한마음대회 축사 자리에서 축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문경(쌀정업농회)에 120ha의 농지를 모아 대단위 이 농지에 전문가의 연구 도움을 받아 재배 종류 및 방법 등을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 사료의 국산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사료값을 끌어내릴 방침이다. 현재 국내 사용 사료의 95%는 수입이다. 장지수 기자

올해 '경북 최고 한우 찾았다'

7일 문경 도립공원에서 명품 한우 선발대회 22개 시·군 총 106두 출품



올해 암송아지 경북 최고의 한우에 문경시 최윤순씨 농가가 차지했다.

경상북도는 7일 문경시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경북 22개 시·군에서 총 106두(한우품평 73두, 고급육 품평 33두)의 한우를 출품시킨 가운데 '2022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각 부문별 최우수 한우를 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우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에서 출품한 한우를 심사해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발굴하고, 한우능력 개량 촉진, 축산 기술과 정보 교류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화합을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호 대회추진위원장(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 및 도의원, 문경시장을 비롯해 한우농가와 관련 기관 임직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 영천에서는 김진수 영천축산농업조합장이 참석했다.

앞서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7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고급육 품평회를 실시해 경진 본행사에 오른 106두가 이날 7일 경쟁을 치렀다.

각 부문별 최우수 한우에는 △암송아지 부문 최윤순 농가(문경), △미경산우 부문 김진 농가(구미), △경산우1부 장영상 농가(칠곡), △경산우2부 최연재 농가(경산), △경산우3부 김진 농가(구미), △고급육 부문에 김경심 농가(청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6일 취임식을 가진 신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취임 이틀째인 이날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혈통의 한우 발굴과 개량 촉진으로 경북 한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맞춤형 축산정책을 통해 한우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서해수호용사 희생 기리는 안보 고취 사진전

영천호국원, 10월 31일까지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이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진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최키로 했다.

호국원은 이 달들어 지난 1일부터 호국원 참배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서해수호 사진전'을 총령당

제2관에서 열고 있다면서 4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작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해군 제2함대 활동 등 서해수호 관련 사진 32점을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와 관련해 호국원 관계자는 "현충탑 참배와 병행한 단체방문객들의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면서 방문 전 전례팀(054-330-0841)으로 전화 접수하면 나라사랑 국립묘지 체험활동도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기자

인터뷰

김하수 청도군수 취임 100일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예산 1조원 시대 만든다 최우선 과제 민생 살리기 영남권 중심 관광청도 추구 군민 행복은 복지·교육에



민선 8기 김하수(사진) 청도군수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군수는 "지난 100일 동안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7대분야 83개 자신의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도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군수의 군정 슬로건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다.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 행보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민선8기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각오 아래 신규행정 수요 발굴 등 공약 추진과 미래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래전략정책관 신설과 국민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8기 조직체제도 전면개편할 예정이다.

■ 행정의 경제적 효율성 증시...국회중앙부-경북도 예산확보 총력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역점 시책사업들을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재 점검한 김 군수는 "이제 공공행정도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집행에서도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 등이 바탕이 된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道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 김 군수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비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

같은 달 기획재정부 예산관계관

쏘를 방침이다.

■ 지역 우수한 관광자원 활용...영남권 중심 관광 청도 추구

김 군수는 청도를 '영남 중심 관광 청도'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청도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사방 100km, 1시간 이내 영남권 인구 1천 300만 명이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으로 대규모 위탁단지 및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청도 발전의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청정지역 새로운 힐링을 위한 캠핑 수요에 따라 청도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청도 명산 등산로를 개설·정비하여 '치유와 힐링'에 중점을 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한다.

■ 군민 행복...복지·교육에 중점

김 군수는 복지·교육 분야에 군민의 행복이 집중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매일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교육·정서안정지원 사업 등을 신규로 실시하는 등 기존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공간인 청도군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 인재양성원을 설립하여 농촌 공교육을 강화하여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을 면담하여 관내 하수도분야 현안사업이 최근 찾아진 집중호우로부터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 보장과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 군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앙정부 및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선제적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청도군 최우선 과제 민생 살리기...4차산업 시대 대비

김 군수는 먼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4차산업시대 마중에 나섰다. "산업 인프라 구축, 정주기반 조성, 유망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공약사업인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중견기업 유치에 힘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박곡-언양 간 터널 개통으로 경산-울산시-청도군을 연결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물류시설 증가로 이어간다.

또 마령재 터널 조기개통, 매전-건천 간 국도 개량, 운문-도계 간 국지도 시설개량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남권 경제 거점화에 군정 에너지를

경북교육청, 342개교 64억...과학교육 기반 조성

모든 학교 지능형 과학실 구축 첨단과학 기자재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경북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지능형 과학기술 구축, 첨단 기자재 도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4일 첨단과학기술 활용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차례의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면서 초·중·고등학교 342개교에 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래형 과학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추진 이후 제기된 과학 교구 및 첨단 기자재

지원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실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 탐구·실험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학교 교구 설비 기준 내의 필수 및 권장 과학 교구 △디지털 탐구 도구(센서), VR·AR 교구, 창작 교구 △과학 전문 교과 및 과제 연구를 위한 첨단 과학기기 등 확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 외에도 첨단과학기술 활용 탐구 콘텐츠와 양질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포은초, 열흘간 한글날 기념 행사 운영

포은초등학교(교장 심선자)는 열흘간 한글날을 기억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인식을 돕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글날 기념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수용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외래어에 가려진 우리말 숨은 낱말 찾기' 활동과 「나랏말싸미」 훈민정음 서문 익히기 활동으로 운영했다.



경북교육청,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일, 8일 일정으로 유치원방과후과정 담당인력인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를 대상으로 예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의 유치원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 및 공감함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한 방과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마련 된 것이다.



경북교육청, 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성교육 내실화... 자료개발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 본관 회의실에서 학생 성교육 자료 개발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초등학생용 교육자료 개발위원 6명, 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개발위원 6명으로 수석·일반교과·보건교사 총 12명으로 구성된 자료 개발 TF팀으로 구성됐다.

경북교육청, 전국최초 인공와우시술비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장애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장애학생 학습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 인공와우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인공와우시술 등에 대한 학

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단을 구성해 인공와우시술비, 인공와우 관련 내·외부 장치 교체 및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각장애학생 20~30명 내외로 선정해 지원하며 매년 꾸준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천교육지원청,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 학교지원센터는 지역 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및 소속기관 전체 46교를 예고없이 방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각 기관의 화장실이나 취약장소 중심으로 적외선 렌즈 탐지기, 전자파 탐지기 등 안전 탐지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집중적 점검할 예정이다.



평천초,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문화예술학교 참가

평천초등학교(교장 정인진)는 지난 6일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1일 문화예술학교'에 참가했다. 1일 문화예술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정서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3개 영역으로 1~2학년은 그림책과 보드게임, 3~4학년은 핸드벨, 5~6학년은 골프로 학년군 특성에 맞춘 체험을 실시했다.



영동고, 대학 입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컨설팅

영동고등학교(교장 정인수)는 지난 4일부터 양일간 202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해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각 학과별 대표 교사 TF팀을 구성해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후 영동고 여건에 맞춰 교육과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단계를 거쳤다.



영천교육지원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캠페인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지난달 29일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 사전 차단을 위해 학생 흡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영천시, 2022 양성평등기념식

영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시민회관에서 영천시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장, 여성·남성단체 회원 등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양성평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영천시 생활개선회 장구단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기 입장, 양성평등향상 유공자 및 여성단체 활성화 유공 단체 시상, 양성평등실천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와 2부로 류재명 전 서울대 교수가 초청돼 강연했다.



금호강둔치 5종 60000본 국화 식재

영천시는 영천교에서 영화교 방면 금호강둔치를 따라 국화 화분 배치와 담장석 문양 화단에 국화를 식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식재된 국화꽃은 자체 인력으로 양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봄부터 국화 삼목, 여름에는 순집기와 분갈이 반복작업으로 5종 6만 본을 직접 생산한 것이다. 한편 식재된 국화는 종류에 따라 지금부터 11월 초까지 개화를 즐길 수 있다.



제16회 백신애 문학제 개최

백신애기념사업회(회장 김종식)는 오는 22일 영천시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제16회 백신애 문학제' 개최와 15회 문학상 및 제 11회 창작기금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제15회 백신애 문학상은 소설가 정광모 씨(부산, '유토피아로 가는 네 번째 방법'), 제11회 백신애 창작기금은 시인 신준영 씨(경북, '나는 불이었고 한숨이었다')가 수상자다.



영천시, 농산물가공창업 심화반 교육 수료식

영천시는 지난달 29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관에서 농산물가공창업 역량 강화와 농식품 가공 사업화 전략 모색을 위해 시작된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심화반이 수료식을 가졌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역내 농산물 이용 신제품개발을 시작으로 농산물가공의 원리, 소규모 HACCP, 식품위생법규 등의 이론과 표고버섯 분말 및 복숭아잼 가공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지역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기초반 수료생 18명이 12회로 진행, 심화반은 15명이 수료했다.



경북도, 부패·공익신고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경상북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11일 도청에서「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1주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는 대국민 청렴포털 및 도 홈페이지 신고창구를 개설해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하도록 운영하고 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로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부조리 예방과 부당 행위 신고를 장려한다.



영천시, 다자녀 직원 격려 간담회

영천시는 지난 5일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에서 다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자녀를 둔 직원들이 오찬 및 티타임을 가지면서 평소 직장생활에 느꼈던 어려운 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시 고충 및 건의사항 등으로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교육청, 전문감사단 55명구성... 학교 현장 맞춤형 컨설팅 10월까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과 7일 전문감사단 컨설팅(추수지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대상 학교는 경산여고 및 김천 성의여고이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활동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해 이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영천시, 함께하는 '영천전투 바로알기' 교육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4일 함께하는 '영천전투 바로알기' 교육을 영천시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영천대첩 72주년을 맞아 '영천전투 바로알기' 주제로 육군3사관학교 박동휘(소령) 군사학과장을 초청했다. 이날 박학과장은 영천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에 이르게한 반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기획취재

대구 퀴어행사... 이유있는 반대

대구 동성로에서 10월 1일 퀴어 행사와 반대행사가 진행됐다.

퀴어 행사는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대중교통지구를 통제해 행사를 진행했고 반대 행사는 곳곳에서 있었다.

△ 퀴어 반대 행사로 가장 큰 규모는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이하 다학연)주최로 이들은 830여명을 집회 신고 했으나 행사당일 모여든 시민으로 대구백화점부터 대구한일(CGV)극장까지 자리를 꽉 메웠다.

[#대구퀴어1]



반대 행사측 경찰추산인원은 1500여명이지만 '퀴어(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라는 문구의 단체 티를 착용한 시민 외에도 퀴어반대 피켓을 든 개인들까지 포함한다면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은 2500명이상 될 것으로 행사 주최측은 추산한다.

△ 이 날 행사는 대구및 경북 내 보수 기독교단체와 경산 소재 학교 학생들도 참여 했고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와 가족, 미혼남, 녀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하는 어르신들로 전세대가 함께하는 행사가 됐다.

반대집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여, 60대) "학생들이 저런 문화에 물들까봐 염려가 된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상인회에서도 퀴어행사에 대한 동성로 일대 상가들이 매년 있는 행사에 대해 거부감으로 이번 행사에는 현수막을 걸어 항의했다.

[#대구퀴어2]



동성로는 대구의 중심지로 청소년부터 청년들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 퀴어행사는 전혀 반갑지 않은 행사다. 그럼에도 집회신고를 통해 일대가 10시간 가량 도로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밀집된 곳에서 우회하는 대중교통이나 시민들이 없어 반짝하는 주말 장소도 기대를 할 수 없다.

A편의점 사장은 "소음과 버스차단은 영업방해다. 그래서 항의 전화를 20통 정도 했다."며 항의에 대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퀴어 축제는 한국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고 축제로 인해 상가 매출이 극감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우리공화당은 (구)중앙파출소 인근에서 여러명의 당원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며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대구퀴어3]

김셋별 청년당원은 기자회견 낭독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사회풍토를 해치는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고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는 행사에도 주최측은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강행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보건적 유해성이 명백한 행사다. 이를 허가한 대구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며 "동성애는 ADIS 확산등 보건적 유해성으로 가족중심의 사회관습에 문란하고 타락한 성문화 행사를 통해 동성애가 건전한 성적지향으로 인식된다면 성윤리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제도는 매우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소수의 성적지향도 명분을 내세우며 음란성을 내포한 저질스러운 퍼포먼스를 자행하고 있는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퀴어축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이날 일반 시민의 고충도 만만치 않았다.

[#대구퀴어4]



중양로 대중교통지구는 14개 노선 240여대가 운행되는데 이날 퀴어행사로 10시간 동안 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버스 이용승객들이 우회하는 버스에 대한 불만 및 이동해서 다른 교통편을 찾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퀴어들의 분장에 어린 아이들이 놀랄까봐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길에 테이블로 출입을 하기 힘들도록 해서 다른길로 우회하기, 버스승강장 이용을 할 수 없는 것 등의 불만을 가졌다.

대중교통이용뿐 아니라 주말 도심 차량 정체에 난색을 표하는 시민도 있었다. 교보문고 대구점 앞은 한쪽 방향 3차선을 퀴어들의 행렬로 인해 약 1시간정도 1차선만 이용하도록 했다. 동성로는 보통 때도 차량이 밀집되는 곳이다.

또 이날 베트남 외국인인 택시를 호출했는데 퀴어 행렬로 택시 진입이 어렵고 횡단보도를 막아 거리 활보가 원활하지 않아 10여분 넘도록 택시 운전기사와 통화중 인성을 높이다 심지어 옆에 있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했다.

퀴어 퍼레이드(대형차2대, 승합차1, 행진인원)는 경찰들이 철망웁스로 양쪽 횡단보도를 막는 행위로 대구한일CGV와 맞은편 횡단보도 이용자는 퀴어 행진 전부터 수십미터를 행진하고 20분가량을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하도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다.

이날 웁스 수거 업체를 만나 잠깐 나누는 인터뷰에서 1톤트럭외에도 다양한 차량으로 약 50개에서 100개까지 실려 나른 차가 20여대이며 이날 사용된 가로폭 1m가량의 웁스 약 1000개가량 사용되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퀴어를 보호하고자 동원된 경찰은 대구중부경찰서 외에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경찰버스 약 25대, 경찰 11개 중대, 900여명이다.

[#대구퀴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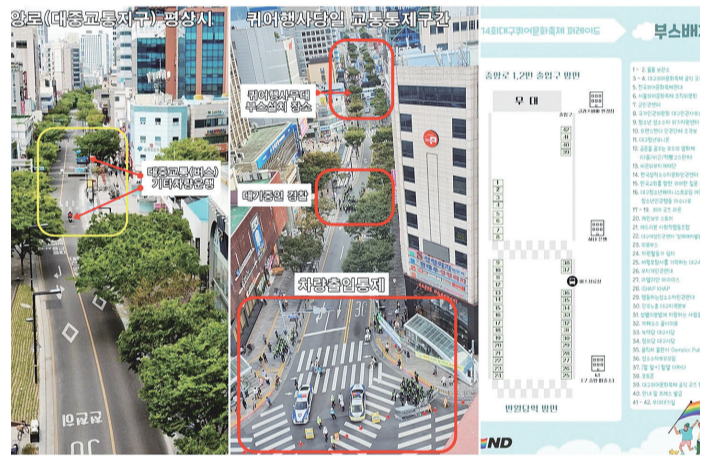


경찰들은 이 날 오전 10시부터 퀴어 행사로 인해 동성로 일대 교통통제, 퀴어 행사자 진출입 관리, 흑시나 모를 퀴어 반대측과의 충돌을 대비하는 등으로 분주했다.

오후 4시쯤 퀴어 퍼레이드에 경찰들은 반대측과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퀴어보호를 위해 웁스 설치및 시민지도, 안내 역할을 하고 차량통행 3차선 도로중 2개 차로를 통제하고 퀴어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 행렬 바깥쪽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위험도 감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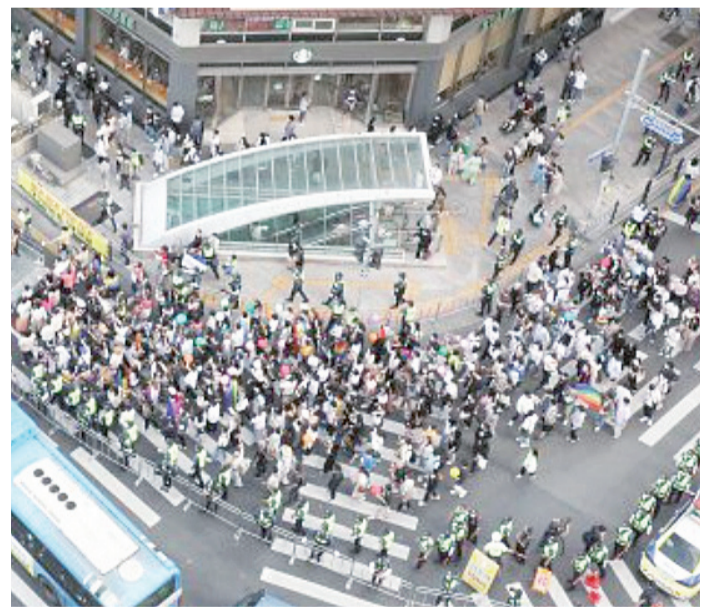
또 퍼레이드 대형트럭 옆 경찰은 큰 음악소리에 귀를 막는 모습도 포착됐다. 마지막 행렬 속 경찰중에는 팔에 깃스를 한 경찰도 참가했다.

[#대구퀴어6]



한편 퀴어측은 집회신고시 3000명에 60여개의 부스설치를 예고했으나 42개로 부스를 축소하고 경찰측 추산 퀴어행사자들은 900여명이라고 했다.

[#대구퀴어7]



또 본지가 중구청 담당부서에 연락해 본 결과 대중교통지구 사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당일 행사에 다녀갔다고 불법적인 부분이 보인다며 해당부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 중구청은 2019년은 퀴어행사 축이 허가없이 도로점용을 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1년은 규모가 적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활동



공무원연금공단, 자사 임직원에 복지 명분 수 억원 사택 무상 제공 드러나

이만희 의원...방만 경영 지적, 자사 직원 더 챙기기, 내부체계 전면 개선 필요
일원동 공무원 임대주택 '상록 스타힐스' 46㎡·59㎡ 대형평수 89% 집중 미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이 자사 임직원에게 1억5천만원~12억원가량의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방만경영에 대한 내부 체계 전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해 전국 11곳에서 사택을 운용 중에 있는데, 부산·광주와 같은 공단 산하 일부 지부에서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무려 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이다.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 운용해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에서 59㎡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단신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추첨'식으로 진행해왔고, 입주 경쟁률 역시 최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무지 인사발령일자, 직급 등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수억원의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내 식구 더 혜택주기 특혜라고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9: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수 억원의 빚을 내어야 하는 반면, 자사 임직원에게는 입주 경쟁률도 없이 수 억원에 달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직격했다.

또 이 의원은 "당장 내년 공무원 연금에 무려 5.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난지원 81.9% 대부분 공공시설, 국민생계 유지 지원 4배

지원대상 확대, 피해액 산정 범위, 일상회복 지원책 등 현실화 촉구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재난지원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난지원 81.9%가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되어 국민 생계(생명)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 국세·지방세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총 2조 6,904억 7,800만원을 교부했는데 이 중 81.9%에 해당하는 2조 2,048억 7,900만원이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실종



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18억 600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1,166억 5,100만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2,900만원 ▲세입자보호 등 생계안정 지원 51억 4,300만원 ▲주 생계수단 농·어·임·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3,619억 7,000만원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조 2,048억 7,9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전체 복구지원비의 8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언급한, 피해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 공공시설 피해의 복구에 쓰인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적은 원인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꼽았다.

이 의원은 "산정기준은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간의 가파른 물가상승,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감도가 낮다"면서 "산정기준은 장관의 고시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시 농축산물 등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선거여론조사기관, '17년 60개 → '22년 91개, 50% 이상 급증
- 지난 5년 동안 선거에서 발생한 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117건
- 이 의원, "선거여론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

실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일침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경찰기강 철저히 단속해야"

성 비위 기소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25% 간음약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어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경찰관 기소 비율 25%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비위 기소경찰 56명 중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3건도 포함돼 있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류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지수 기자

2022년 영천시 자랑스런 시민상

조삼열 스타사랑봉사단 후원회장

전국영천향우회와 인연 4년만에



'2022년 영천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는 사회봉사 1개 부문에 '스타사랑봉사단' 조삼열 후원 회장이 선정됐다. 2018년 영천과 본격 인연을 맺은지

만 4년 만이다.

영천시는 지난 7일 신청(심사) 대상 2개 부문 중 1개 부문에서만 1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조삼열씨는 스타사랑봉사단(단장 김서현)의 후원 회장으로 "장학금 기탁 등 고향 후배들을 돕기 위한 기부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식류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자랑스런 시민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삼열씨는 2017년 당시 김영석 전 시장시절 영천시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한차례 기탁한바 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4년 전인 2018년 7월 전국영천향우연합회가 기존연합회(회장 유기조)와 新연합회(회장 최학수) 둘로 쪼개져 향우 사회의 논란속에 新연합회측 청년회장(대구지역)으로 등극하면서 영천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또 조삼열씨는 당시 경기도 광주와 대구 등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인 그린팜(경기도)·안나슈팜을 운영하면서 ▲최기문 영천시 장에게 아마란스(잡곡) 165상자, 햄프씨드(간식용) 500상자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한것이 사실상 영천과의 노출된 첫 인연이다.

이 후 조씨는...

영천시에 ▲2020년 3월 장학금 50만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코로나 극복 온정의 성품(컵밥 1020인분), ▲2021년 1월 어르신들 간식(라이스칩 등) 150박스, ▲같은해 5월 곤드레나물 즉석식품 1만개(2400만원 상당) 기탁한 후 ▲2021년 5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새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창에서 단호박 재배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천과의 농산물 식품 가공업 인연을 본격화했다.

▲2021년 여름(6월)에는 전국영천시향우연합회 김서현 여성회장과 함께 선풍기 454대, ▲2021년 9월 수해 및 저소득가구에 단호박 200박스, ▲2021년 10월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은누리요양원 등에 120여 박스의 단호박과 고등어, ▲2022년 1월과 3월 3만여 개 도시락과 루비에스 200상자, 부각·라이스칩 등 가공식품 1150상자, 단호박 등을 기탁하며 동시에 매월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어두운 사회를 비추어 오는 등 등 수 십 차례 수 천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기증해 왔다.

조삼열씨가 운영하는 안다미그룹 산하에는 식품가공업(주)이안스푸드 글로벌, 식품회사 안나슈팜, 물류회사(주)엘원 등이 있다.

김치공장에서 19년을 근무한 후 2017년 퇴사해 이듬해 영천과 인연을 맺은 조삼열 회장은 2018년 7월 전국영천향우회에 가입해 김서현 여성회장과 함께하면서, 2021년 11월 1일 영천스타사랑봉사단(단장 김서현)을 출범시켜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본격 고향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자랑스런 영천 시민상 수상'은 오는 10월 14일부터 개최하는 제20회 영천한약축제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안다미 이안스푸드글로벌 회사 홈페이지

영천식품과학마이스터고, 영농학생축제 금·은·동 석권

참가 학생 13명 중 11명 수상 역대 최고 성적 달성

경북 영천에 있는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김해생명과학고에서 열린 '제51회 전국 영농학생축제'에서 참가 학생 11명이 수상하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4개 농생명계열 고교에서 86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연구과제(개인) 및 전공경진(식품가공) 등 5개 분야에 13명의 학생들이 경북 대표로 참가해 금상 3개, 은상 6개, 동상 2개를 획득하는 최고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금상 수상자 중 2명은 1등에게 주어



제51회 전국 영농학생축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제공

지는 교육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미정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교장은 "재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의로운 마음!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영천 16개 읍·면·동에 18개 의용소방대에 (남여)481명의 대원

경북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오기봉(남), 백승연(여))가 7일 영천강변공원 푸른 잔디마당에서 '2022소방기술경연대회'를 펼쳐 하나되는 국민소방력을 과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오다 3년만에 개최된 이날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차원의 행사다.

모처럼 대명 행사에 이날 대원가족 5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방화복 착용 400M 이어달리기, 구명부환 던지기, 심폐소생술 체조공연 등 폐널티킥 승부차기, 줄다리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오후 4시까지 역량 강화는 물론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펼쳐며 단합의 힘을 보였다. 특히 이날 대회에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



해 하기태 시의장, 이춘우·윤승오 지역 도의원, 김용태 영천소방서장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경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여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경기 결과는 남부남성의용소방대가 우승, 준우승은 신녕남성의용소방대, 장려상에는 단포지역대, 금호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화합상은 영천여성의용소방대, 참가상은 금호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오기봉(남)연합회장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통해 대원 간에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며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난 없고 안전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는 영천지역 16개 읍·면·동 산하에 18개 (남여)의용소방대가 조직돼 모두 481명의 (남여)의용소방대원이 회원으로 소속돼 지역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 영천시의회 제4 연구용역 착수

올해 제9대 의원연구모임이 모두 결성됐다. 지난 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마지막 네번째 연구용역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 연구(대표 김용문 의원) 착수 보고회를 끝으로 4건의 의원연구모임 결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7일 의회는 3명씩 4개조로 4건의 의원연구회가 이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착수 보고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의원 연구는 농촌문제와 관광활성화, 복숭아시설 개선을 포함해 이번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다.

이날 네번째 연구에서 김용문 대표 의원은 "부모와 돌봄종사자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하고 효능감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향상, 만족도는 물론 공공보육시설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며 연구 이유를 밝혔다.

보고회는 하기태 의장과 김선태·김용문 의원이 한 조로 결성된 연구 사업으로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서중수교수가 책임연구원, 경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성열 교수 공동연구원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인구교육과(인구행정담당, 인구시책담당), 가족행복과(보육아동담당), 건강관리과(출산지원담당)로 관련 부서에서도 참여했다. 서교수는 영천시내 16개 읍면동중 소멸주

- 제3연구용역-'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대표 이갑균 의원)
- 제2연구용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대표 이영기 의원)
- 제1연구용역-'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연구'(대표 박주학 의원)



의 지역 3곳(동부동, 중앙동, 완산동), 소멸위협지역 2곳(서부동, 남부동), 소멸고위험지역 11곳으로 파악돼 신사회 위협을 경고했다.

반면 영천시는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된 곳이 많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고 했다.

또 육아지원종합센터, 공동육아센터가 영천에 없다는 정보에 대해 관련된 정책적 요구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 정책을 도입하고 서비스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어 출생및 양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위해 미혼, 기혼, 돌봄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FGI(Fouce Group Interview)로 세부내용 파악 계획을 밝혔다.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와 FGI및 실태 분석, 정책 제언 도출로 구성돼 2차 자문을 통해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된다.

하기태 의장은 "서교수가 맡아서 하지만 시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좋은 결과를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문 대표 의원과 김선태 의원은 "현장과 집행부서가 파악하는 것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가 영천시 인구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수탁자로 되어 있는 신탁회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탁자인 건설회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놓더라도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귀하께서는 가급적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탁원부를 열람해 보고 그 신탁원부상에 수탁자 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그 수탁자 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신탁원부상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신탁등기된 아파트를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 할 수 있나?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신탁)와 계약해야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는다. 를 받을 수 있다

문 신탁등기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분양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싶다.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겠는지?

답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이와 같은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주소만 옮겨두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주소만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생활을 따로 한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입증서류를 챙겨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주소에서 살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한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오피스텔 내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로 사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종과로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많이 높아져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국세청에 서면질이나 주변 세무사 등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다주택자 세대분리 주의사항

사실혼도 1세대 간주

위장전입인 적발 쉽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다주택자에서 배제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대분리를 통해서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세대분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기존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9년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혼했더라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한다.

다음으로는 위장전입인 경우에는 거의 적발된다는 점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

우종철 칼럼

우종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잊혀져가는 '한글날' 성삼문을 생각한다.

다시 한글 창제 576돌을 맞는다. 1443년 완성되어 1446년 반포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문맹률은 각각 50%, 21%에 이르는데, 우리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 것은 한글의 간결함과 과학성 때문이다.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7배나 빠르다.

그러나 한글창제 이후 한글의 고난사(苦難史)는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에 의해 '언문(諺文)'이라고 천대 받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민족 말살을 위해 한글 사용을 금지했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학자들을 투옥했다. 미군정 시기에는 영어를 섞어 써야만 지식인으로 대접 받았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도 한글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어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대기자로 넘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매년 30만명에 달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우리말을 홀대하고 있다.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담배인삼공사 등도 이름을 케이티(KT), 서울메트로, 케이티앤지(KT&G) 따위로 바꾸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질병관련 단어도 외래어 투성이다. 코로나 '펜데믹'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드' 코로나는 '공존' 코로나처럼 우리말을 쓰면 된다. 구태여 외래어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거리의 간판, 아파트 명칭, 골프장 이름에서도 한글은 이제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한글만을 고집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내 나라말을 사랑해야 한글이 나중에는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국가 정체성'은 말과 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글은 막대한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준다. 때문에 정부부터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 한글의 세계화는 한글 존중에서 시작된다.

1443년(세종 25)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 때, 정인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개 등과 더불어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성삼문의 본관은 창녕,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1418년 홍성군 외가에서 도총관을 지낸 성승(成勝)과 현감 박참(朴瞻)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고 묻는 소리가 세 번 들려와 이름을 '삼문(三問)'으로 지었다고 한다.

18살 때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1살 때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 발탁된 매죽헌. 신숙주와 함께 요동을 13차례나 왕래하면서 명나라 학자 황찬(黃燦)으로부터 음운학을 배웠으며, 서역 문자까지 연구하고 그 성과들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중국에 간 매죽헌은 우연히 '이제비(夷齊碑, 백이숙제비)'가 서있는 곳을 지나다 시 한수를 지었다.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꿇어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야 되겠는가/비록 푸성귀라도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났던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단종을 내쫓고 1455년에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매죽헌은 단종복위(端宗復位)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39세에 능지처참을 당하고, 멸문(滅門)의 화를 입었다.

처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술 한 잔을 마신 후 지은 '절필(絶筆)'이라는 시에 그의 깨끗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일사고지충의재(一死固知忠義在, 한 목숨 바치는데 충의가 있음을 알겠거니) 현릉송백몽의의(顯陵松栢夢依依, 현릉(문종)의 송백이 꿈속에 아련하네."

매죽헌은 숙종 때에 역모 혐의가 풀렸고, 영조 때에 이조판서 관직이 추증되고 '충문(忠文)'의 시호를 받았다. 필자는 고려의 정몽주처럼 조선 제일의 충의 절신(節臣), 매죽헌 선생의 의리와 기개를 경모한다.

본지 객원논설 겸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종철 박사(자하문 연구소장)
현 사)영호남상생발전포럼 이사장,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저서 '포용의 리더십', '신뢰와 원칙', '삼불망', '통일대와' 등>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깊어가는 가을,
어느 멋진날

제15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출연진

정은주 재즈 콰텟 | W코랄 앙상블
소프라노 이화영 오히진 박영민 테너 강현수 김명규
바리톤 추장환 피아노 장윤영

2022.11.3. 목 7:00pm

영천시민회관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 T. 054.330.6680)

주최 | 영천시민가을음악회추진회 주관 | 계명대학교 영천동문회,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동문회

후원 |  경상북도  STAR 영천시  시민신문사